

‘사우디 비전 2030’ 추진 동향 및 협력 시사점

정재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장 (jwjung@kiep.go.kr, Tel: 044-414-1204)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Tel: 044-414-1266)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차 례

1. ‘사우디 비전 2030’ 추진 동향
2. 비전 이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사례
3. 한·사우디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 협력 의제
4.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시사점

주요 내용

-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중동 및 이슬람 문화 대표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장기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선보였고,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이행계획인 12개 비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공급구조 변화에 따라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및 정부 재정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외국인투자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비석유 민간부분 역량강화를 모색함.
 - 경제 부문 외에도 관광, 문화, 교육 부문 강화와 역내외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과거의 유사한 탈석유 산업다각화 전략과 달리 세부 분야에 대한 단기 및 중기 이행계획을 세워 비전 2030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미국 및 유럽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아시아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과 중장기 국가 전략간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에너지 부문 중심 경제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일본의 신성장 전략,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주요 경제발전 계획과 ‘사우디 비전 2030’ 간 연계를 통해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 우리나라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의 전략적 핵심 협력국가로서 2017년 출범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및 정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양국 장관급 협의체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2017년 10월 에너지 및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화, 역량강화,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중소기업 및 투자 등 5대 협력 분야 40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함.
 - 비전 2030 위원회는 양국간 협력 프로젝트 선정, 점검, 이행촉진, 애로해소의 역할을 맡는 협력의 구심점으로써 비전 오피스 개소, 청년 싱크탱크 제도 신설, 비즈니스 포럼 및 기업간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 2019년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함.
 - 석유화학, 자동차, 수소 경제, 방위산업, 조선, 신소재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총 83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하였음.
 - 향후 경제협력 의제 실현을 위해 인프라 건설, 역량 강화,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 대한 후속 논의와 함께 양국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후 점검 및 이행 체계 마련,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함.

1. '사우디 비전 2030' 추진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의 주도로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사회문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장기 국가 혁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정부 재정 수지가 불안정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어 탈석유 산업다각화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개발비전 1970-85', '20년 장기 계획(Long-Term Strategy 2024)' 등의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차례 수립하였으나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2014년 이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특히 최근 미국이 비전통방식의 원유 생산 증가를 바탕으로 최대산유국이 되면서 더 이상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초고유가가 실현되기 어려움.
-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민간 및 비석유 부문의 발전은 더디고, 정부 보조금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사회의 주요 불안요소로 제기됨.

그림 1. 국제유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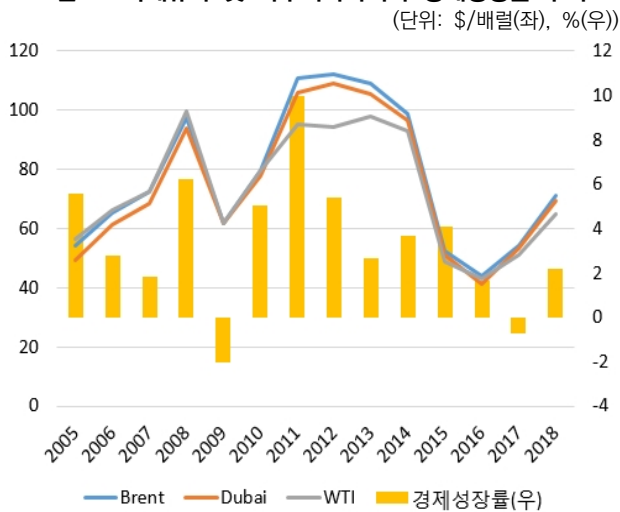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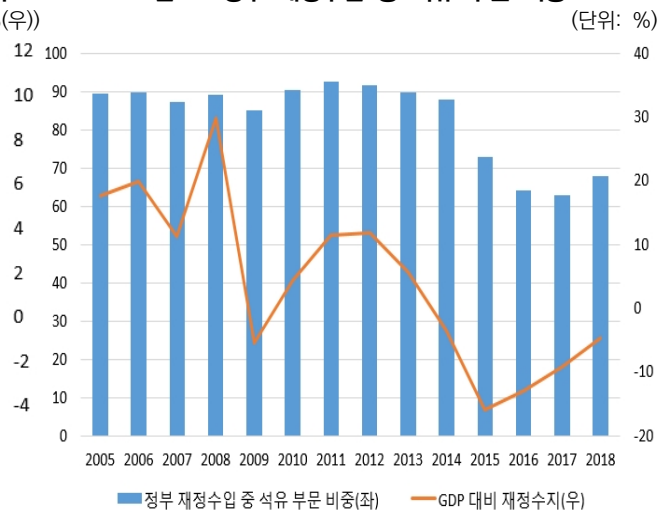


그림 2. 정부 재정수입 중 석유 부문 비중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9. 자료: SAMA Annual Statistics 2018.

- 이에 살만 국왕의 아들이자 당시 부왕세자 겸 경제개발위원회(CEDA: 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의장이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은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강화하고자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¹⁾
- 탈석유 산업다각화와 함께 민간부문 역량강화, 노동시장 개혁, 문화, 관광, 교육 부문 활성화, 역내외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1) 이후 무함마드 빈 살만은 2017년 6월 왕세자 겸 제1부총리로 등극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로 자리잡음.

-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복지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3대 주요 목표(pillars)로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를 제시함(표 1 참고).
-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석유 시대 이후의 미래를 구상하는 청사진임.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중동지역 유일의 G20 국가
- 전 세계 17억 무슬림의 정신적 중심국가
- 원유(매장량 세계 2위)와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4위) 등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2,9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 Public Investment Fund) 활용이 가능한 국가

표 1. '사우디 비전 2030'의 영역별 주요 목표와 추진방안

3대 영역	주요 목표	추진방안
활기찬 사회 (A Vibrant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 연간 수용 가능 순래객 수: 800만 → 3,000만 · UNESCO 등재 문화유산 2배로 확대 - 성취감 있는 삶 · 세계 100대 도시에 3개 도시 진입 · 문화 및 오락 활동 가계지출 비중: 2.9% → 6.0% ·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개인 비중: 13% → 40% - 견고한 사회적 기반 · 사회적 자본지수 순위: 26위 → 10위 · 평균 기대수명: 74세 → 8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지 순래객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 세계 최고의 이슬람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설립 · 사회 및 문화 클럽 설립 및 등록 절차 간소화 · 문화 및 오락 활동 장려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 · 2020년까지 450개 이상 등록 클럽 운영 · 2020년까지 학부모의 80%가 학교 교육 활동 참여 ·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민영화 추진
번영하는 경제 (A Thriving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기회 확대 · 실업률: 11.6% → 7.0% · 중소기업의 GDP 비중: 20% → 35%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22% → 30% - 장기적 투자 · 세계 경제 순위: 19위 → 15위 · 석유 및 가스부문 국산화 비중: 40% → 75% · PIF 자산: 6,000억 리알(1,600억 달러) → 7조 리알(1조 8,665억 달러) - 열린 비즈니스 기회 · 국제경쟁력지수: 25위 → 10위 · 외국인직접투자: GDP 대비 3.8% → 5.7% · 민간부문 GDP 비중: 40% → 65% - 지리적 이점 활용 · 물류성과지수: 세계 49위 → 25위, 역내 1위 · 비석유 부문 수출 GDP 비중: 16%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세계 200위권 대학에 5개 이상 진입 · 문해력, 수리력,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현대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편 · 벤처 캐피털, 기술교육기관, 인큐베이터 설립 · 2030년까지 방위산업 국산화율 50% 달성 · 2020년까지 광업 분야 9만 개의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9.5GW 확보, 민영화 추진 · 킹 압둘라 금융지구 구조조정 · 소매업 육성을 통해 자국인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중 80%까지 확대 · 외국인투자자 소유권 제한 완화 ·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전자정부 구현
진취적인 국가 (An Ambitious 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정부 · 비석유부문 재정수입: 1,630억 리알(434억 달러) → 1조 리알(2,666억 달러) · 정부 효율성 지수 순위: 80위 → 20위 · 전자정부 순위: 36위 → 5위 - 높은 책임감 · 가계 저축률: 6% → 10% · 비영리부문 GDP 비중: 0.3% → 5% · 연간 자원봉사자 수: 11,000명 → 10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50만 공무원 원격실무교육 프로그램 · 정부 효율성 향상 ·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 ·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지리정보, 보건의료, 교육 등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정부 기관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 · 각종 비영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 정부기관 과 협력 확대

자료: Saudi Vision 2030, Vision, Goals(<http://www.vision2030.gov.sa/en/goals>, 검색일: 2019. 6. 10).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과거 중장기 전략이 가지고 있던 낮은 이행률 문제를 극복하고자 주요 부문별 중기 목표와 세부 계획을 담은 단계적 비전 이행 계획을 수립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직후 보건의료, 삶의 질, 민간부문, 노동시장, 관광 등에 대한 2020년까지의 세부 목표를 담은 국가개혁프로그램(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을 발표함.
 - 주요 세부 목표에는 GDP 중 중소기업 비중(22→23%) 및 디지털 경제의 비중(2→3%)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17→25%),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 향상(57→40위) 등이 있음.²⁾
 - 이후 경제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경제개발위원회(CEDA)를 중심으로 재정균형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2020), 자국 기업 육성 프로그램(National Companies Promotion Program) 등 2020년까지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개의 비전 실현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시함(표 2 참고).³⁾

- 특히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산업 발전 및 물류 프로그램(NIDLP: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은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중점 산업 및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NIDLP는 사우디아라비아를 4차 산업 강국 및 글로벌 물류 허브로 전환시키고 자국민 일자리 기회 창출, 무역수지 개선, 제조업 국내 부가가치비중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
 - 특히 제조업(자동차, 보건의료 및 제약, 방위, 석유 및 천연가스, 식품가공, 농수산업), 광업, 에너지, 물류를 4대 중점 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문에 향후 10년간 4,27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⁵⁾
 - 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프랑스의 탈레스, 벨기에의 CMI 등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비롯한 총 66건의 제조업, 광업, 에너지 및 물류 서비스 관련 MOU가 체결되었음.⁶⁾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와 연관된 다양한 투자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2) Saudi Vision 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https://vision2030.gov.sa/en/programs/NTP>, 검색일: 2019. 7. 25).

3) Saudi Vision 2030, Strategic Objectives and Vision Realization Programs, pp. 47-68.

4) Saudi Vision 2030,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 Logistics Program, p. 7.

5) Frank Kane, Hala Tashkandi(2019. 1. 28), "Saudi industrial plan aims to drive \$450bn in investments," *ArabNews* (<http://www.arabnews.com/node/1442946/business-economy>, 검색일: 2019. 6. 23).

6) Frank Kane, Hala Tashkandi(2019. 1. 28), "Saudi industrial plan aims to drive \$450bn in investments," *ArabNews* (<http://www.arabnews.com/node/1442946/business-economy>, 검색일: 2019. 6. 23).

표 2. '사우디 비전 2030' 실현 관련 주요 프로그램

추진 부문	프로그램	주요 목표
재정 및 공적자금 부문	재정균형프로그램 (Fiscal Balance Program)	· 재정계획의 효과와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 · 정부 수입 다각화(공기업 수입 극대화, 정부 서비스 및 세외 수입 증대)
	공공투자펀드 프로그램 (Public Investment Fund Program)	· PIF의 자산 규모 증대 · PIF를 통해 새로운 산업 부문 개발, 첨단기술 및 지식의 국산화 · PIF를 통한 전략적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
민간 및 비석유 부문	자국 기업 육성 프로그램 (National Companies Promotion Program)	· 우수 국내 기업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 국내 유망 기업을 지역 및 글로벌 리더로 육성
	국가 산업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 석유 및 천연가스 연관 산업 발전 · 전력 생산 중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 · 유망 제조업 및 방위산업 등의 자국화 확대 · 물류 허브로서의 성과 향상, 무역 및 운송 네트워크의 지역 및 국제적 연결성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Strategic Partnerships Program)	· GCC 역내 경제 통합 추진 · GCC 역외 지역과 경제협력관계 확대 및 글로벌 파트너와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금융 부문 개발 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rogram)	· 선진적 자본시장 구축 · 민간 금융기관 육성
	민영화 프로그램 (Privatization Program)	·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국유 자산 활용 허용 · 특정 부문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사우디 특성 강화 프로그램 (Saudi Character Enrichment Program)	· 이슬람 및 국가적 가치 증진 · 아랍어, 교육 및 직업훈련,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혁신과 기업가정신 문화 육성 및 지원
사회 및 문화	라이프 스타일 개선 프로그램 (Lifestyle Improvement Program)	· 스포츠 활동에 대한 대중 참여 확대 · 수요 기반 엔터테인먼트 기회 개발 및 다각화 · 사우디인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기여 확대
	하지 및 우므라 경험 개선 (Enriching the Hajj and Umrah Experience)	· 성지순례(하지(Hajj) & 우므라(Umrah)) 방문객 유치 확대, 성지순례 접근성 강화 · 성지순례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 성지순례 방문객에게 정신적, 문화적으로 풍부한 경험 제공
	하우징 프로그램 (Housing Program)	· 국민의 주택 소유 확대

자료: Saudi Vision 2030, Strategic Objectives and Vision Realization Programs, pp. 47-68.

■ 비전 2030 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PIF를 강화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PIF 프로그램을 통해 PIF의 규모 확대, 신산업 및 신기술 국산화에 투자,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을 실현하고자 함.

- 국영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Aramco) IPO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산규모를 1.5조 리얄(4,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4~5%의 수익률을 실현하여 장기적 투자자산을 확보하고자 함.
- 비전 2030의 산업다각화 목표 실현을 위해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폐기물관리 산업 등 신산업 및 관련 기반 시설에 적극 투자하고 최첨단 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계획임.
- 국제자본시장에서 PIF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할 또한 부여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홍해 개발, 네옴(NEOM) 시티, 키디아(Qiddiya) 엔터테인먼트 시티 등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비전 2030의 핵심인 관광, 엔터테인먼트, 물류, 신산업 등 탈석유 산업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표 3 참고).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3대 프로젝트 투자회사의 의장을 맡고 PIF가 프로젝트 투자 자금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 PIF가 각 프로젝트에 50%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고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계적 기업을 참여시켜 국제적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임.
 - 한편으로 유례없는 사업추진 규모에 비해 실행계획이 불투명하고 프로젝트간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투자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받고 있음.⁷⁾
- 홍해 연안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고 특구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과 활동을 허용하여 내외국민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온건한 이슬람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키디아 프로젝트, 네옴 시티 프로젝트 또한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제한되었던 관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들의 관련 수요를 충족하고 이슬람 성지순례 이외의 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임.

7) Azhar, Saeed, Stephen Kalin(2019. 6. 28), "Saudi Arabia's hometown ambitions could clip wealth fund's wing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saudi-pif-investment-insight/saudi-arabias-hometown-ambitions-could-clip-wealth-funds-wings-idUSKCN1TTOOE>, 검색일: 2019. 7. 18); Denning, Liam(2017. 10. 25), "Saudi Arabia's NEOM: Oasis or Sand Castle?" *Bloomberg Businessweek*(<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0-24/saudi-arabia-s-neom-oasis-or-sand-castle>, 검색일: 2019. 7. 18); Nereim, Vivian and Donna Abu-Nasr(2019. 6. 25), "Saudi prince's US\$500-billion megacity shows signs of life," *Bloomberg*(<https://www.bnnbloomberg.ca/saudi-prince-s-megacity-shows-signs-of-life-1.1292162>, 검색일: 2019. 7. 18).

표 3. 사우디 3대 메가 시티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발표 시점)	개요
홍해 개발 (201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3만 4,000km²(북서부 메디나주 홍해 연안, 하와이의 2배 면적)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해의 약 50여 개 섬과 연안에 최고급 국제 관광 및 휴양 도시 개발 - 2019년 초 1단계 공사 시작, 2022년 1단계 완료 계획 - 국내법이 아닌 홍해개발특구법이 적용되어 이슬람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 가능(음주, 바키니 등 허용) - 네움 시티 프로젝트와 지리적으로 일부 중첩됨 · 투자 규모: 100억 달러 · 자금 조달방안: PIF가 주요 투자자로 나서고 민간 및 해외 자본 투자를 통해 조달
네움 시티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2만 6,500km²(북서부 타북주, 서울의 44배 면적)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세계 무역, 혁신, 지식의 허브를 표방 - 에너지, 수자원, 교통, 생명공학, 식량, 제조업(신소재, 3D 프린팅, 로봇, 자동차 생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문화·패션, 기술, 관광, 스포츠, 건설, 서비스, 의료 및 복지, 교육, 거주성 등 16개 분야에서 미래혁신도시를 추구 - 2019년 주거도시 착공, 2020년 네움 베이 완공 목표 - 이집트 접경 타북 지역은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기반 시설이 전무하여 막대한 투자 필요 · 투자 규모: 5,000억 달러 · 자금 조달방안: 정부 예산 및 PIF 자금, 민간투자 유치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시티 (201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334km²(리아드 인근, 올랜도 월트디즈니월드의 3배)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복합 관광·레저·교육도시 건설을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테마파크, 스포츠 및 복지, 이동성, 자연과 환경, 예술과 문화 등 5개 전략 분야 사업 - PIF와 미국 테마파크 Six Flags간 공동사업 추진 - 2025년까지 별장용 주택 4천호, 2030년까지 1만 1천 호 건설 계획 - 걸프 지역 800만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 - 2022년 1차 개장, 2035년 최종 완공 목표 · 자금 조달방안: PIF가 사업 자금의 50%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PPP로 추진

자료: The Red Sea Development Company, The Projec, The Master Plan(<https://www.theredsea.sa/en/project>, 검색일: 2019. 7. 2); "Hospitality is 'anchor' of Red Sea project"(2019. 1. 27), Arab News(<http://www.arabnews.com/node/1441476/saudi-arabia>, 검색일: 2019. 7. 2); Pukas, Anna and Ben Flanagan(2019. 1. 16), "Saudi Arabia to start first phase of Neom project," Arab News(<http://www.arabnews.com/node/1436436/business-economy>, 검색일: 2019. 7. 1); Qiddiya Homepage(<https://www.qiddiya.com/>, 검색일: 2019. 7. 1); "Saudi Arabia unveils master plan of its Qiddiya entertainment city project"(2019. 6. 27), Al Arabiya(<http://english.alarabiya.net/en/life-style/entertainment/2019/06/27/Saudi-Arabia-unveils-masterplan-of-its-Qiddiya-entertainment-city-project.html>, 검색일: 2019. 7. 1).

2. 비전 이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사례

■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과거 전통적 외교관계를 이어온 유럽 및 미국 중심의 협력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아시아 주요 석유수입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전략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10월,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책임을 묻는 유럽 및 미국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석유 수입국과 에너지 협력을 넘어 다방면에서 걸쳐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가. 중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중장기 국가 전략을 연계하여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2016년 1월 양국 외교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켰으며 고위급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함.
- 고위급 공동위원회는 정치 및 외교, 주요 투자 협력 프로그램,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등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Belt and Road Initiative) 간의 전략적 연계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2016년 8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중국에서 개최된 1차 공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에너지, 광업, 금융, 정보통신,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개 양해각서(MOU) 및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중국 금융계 인사들과 금융협력 추진방안, 비전 2030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내 투자 기회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⁸⁾
- 2017년 3월에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사우디 비전 2030'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간의 상호 협력관계에 합의하고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 시진핑 중국 주석은 '사우디 비전 2030'을 지지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일대일로의 협력 파트너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
- 사우디-중국 투자 포럼에서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에 따른 중국의 투자 확대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고 양국 기업간 17개 MOU가 체결되는 등, 살만 국왕의 중국방문 기간 동안 에너지, 석유화학,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MOU가 체결됨.⁹⁾

■ 2019년 2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파키스탄, 인도, 중국을 순방하고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시아 주요 협력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함.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아시아 순방은 카슈미르 피살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본인에 대한 비판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전 2030을 비롯하여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에서 아시아에 대한 방향성을 강화하고 사우디 미래투자계획(FII: Future Investment Initiative)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기업의 비토 등 외교적 위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됨.¹⁰⁾

8) "17 Agreements Mark First Meeting of Saudi-Chinese Joint Committee"(2016), *Asharq Al Awsat*. (August 31)

9) Blanchard, Ben(2017), "China, Saudi Arabia eye \$65 billion in deals as king visits," *Reuters*. (March 16)

10) Marsh, Jenni(2019), "From a golden gun to a bear hug ... Saudi Prince's Asia tour tells the West: You may shun me, but

- 중국에서는 에너지, 석유화학, 광업, 항만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총 280억 달러 규모의 35개 MOU에 서명하고 '사우디 비전 2030'과 일대일로 연계 노력을 강조함.¹¹⁾
- 중국 방문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양국 고위급 공동위를 통한 비전 2030-일대일로 간 연계를 전 분야에서 강화하기로 합의함.
- 사우디 아랍코는 중국의 노린코(Norinco)와 합작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 판진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저장석유화학(Zhejiang Petrochemical) 지분 9%를 확보하는 등 중국 내 석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나. 일본

■ 2017년 3월 살만 국왕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은 사우디 비전 2030과 일본 신성장 전략 간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우디-일본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함.¹²⁾

- 2016년 9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우디 3개 부처(경제기획부, 통상투자부, 에너지산업광물부)와 일본 2개 부처(경제산업성, 외무성)가 참여하는 사우디-일본 비전 2030 공동 그룹(Joint Group) 설립에 합의한 바 있음.
- 사우디-일본 비전 2030 계획은 '다양성(Diversity)', '혁신(Innovation)', '소프트 밸류(Soft Values)'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9개 협력 부문과 43개 협력 가능 프로젝트를 포함함(표 4 참고).
- 양국은 산업경쟁력,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보건의료, 양질의 인프라, 농업 및 식량안보, 중소기업 및 역량강화, 문화·스포츠 및 교육, 투자 및 금융 등 9개 부문에서 43개 협력 가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중 31개를 우선적으로 추진될 중점 프로젝트(Front Runner Projects)로 선정함.
- 규제완화, 인센티브, 조직적 지원, 인적 자본 부문에서 사우디-일본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양국은 2016년 9월 일본에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위한 사우디-일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이후 양국의 주요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양국을 교차하여 개최함.

- 일본은 2016년 포럼에서 일본 기업이 선호하는 유망 분야를 담은 '사우디 비전 2030을 위한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 목록을 사우디 측에 전달함.
- 2016년 포럼에서 태양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발전, 산업인력 육성, 합성수지 제조 등의 부문에서 11개 MOU가 체결됨.

¹¹⁾ "I'm not alone." *CNN*. (February 24)

¹²⁾ "KSA Vision 2030 Intersects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2019), *Asharq Al Awsat*. (February 24); Blanchard, Ben(2019), "Saudi Arabia strikes \$10 billion China deal, talks de-radicalisation with Xi," *Reuters*. (February 22)

¹³⁾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Japan Vision 2030," https://www.mep.gov.sa/en/ministryinitiatives/ksa_japan(검색일: 2019. 7. 3).

- 2017년 3월 살만 국왕 방일을 계기로 '사우디-일본 비전 2030 비즈니스 포럼'이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 1월에는 리야드에서, 2019년 6월에는 도쿄에서 포럼이 개최됨.
- 2018년 1월 포럼에서는 사우디 투자청(SAGIA)이 일본의 금융,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3개 기업에 대해 사업을 허가하고, 해수담수화사업, 스포츠, 보건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6개 MOU가 체결됨.¹³⁾
- 2019년 6월 도쿄에서 개최된 포럼에서는 양국간 민간 부문 협력 강화와 합작투자 확대가 논의되고 총 14개 MOU가 체결됨.¹⁴⁾

표 4. 사우디-일본 비전 2030 주요 내용

3대 영역	다양성	혁신	소프트 밸류
주요 협력 부문 및 중점 프로젝트	산업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기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4차 산업혁명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 사우디아라비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시스템 개발 • 제조업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공급망 구축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키나와 내 공동 원유저장 용량 확대 • 아람코 IPO 관련 협력 • 에너지 효율성 및 절약 촉진 •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추진 • 발전 및 그리드 부문 협력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훈련 및 연구, 전문가 교류 	
	질 높은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담수화 및 물재생 관련 협력 • 에너지 절약형 해수 역삼투 시스템 개발 •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한 주택 매매 서비스 관련 연구 	
	중소기업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구현 및 역량강화 • 카이젠(KAIZEN) 보급 • 기업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 • 사회개발 관련 협력 • 국제개발 노력에 공동으로 기여 	
	문화·스포츠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및 국가 유산 관련 협력 • 교육 부문 개선을 위한 협력 • '일본 문화 주간(Japan Cultural Week)' 행사 개최 • '아라비아의 길(Roads of Arabia)' 전시 개최 • 가라테, 유도 등 종목에서의 협력 확대 • 엘리트스포츠 협력 	
	투자 및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타다울(Tadawul)과 일본거래소그룹(JPX) 간 협력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Japan Vision 2030," https://www.mep.gov.sa/en/ministryinitiatives/ksa_japan(검색일: 2019. 7. 3).

13) Hassan, Rashid(2018), "Japanese reap rewards as three firms win operational license at business forum in Riyadh," *Arab News*. (July 4)

14) METI(2019), "Saudi-Japan Vision 2030 2.0 Formulated,"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618_003.html(검색일: 2019. 7. 1).

- 양국은 2019년 6월 사우디-일본 비전 2030 공동 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일본 비전 2030 2.0'을 선언함.¹⁵⁾
 - 최근 도쿄에서 열린 3차 사우디-일본 비전 2030 공동 그룹 회의에서 무함마드 알 투와이즈리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사우디-일본 비전 2030의 그간 성과를 토대로 향후 실행 계획을 담은 '사우디-일본 비전 2030 2.0'을 채택함.
 - 사우디-일본 비전 2030 발표 이후 양국의 비전 2030 공동 그룹 참여 부처 및 기관은 41개에서 64개로 확대되었고, 협력 프로젝트 수 또한 31개에서 61개로 약 두 배 증가함.
 - 사우디-일본 비전 2030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양국의 공공-민간 부분 파트너십(PPP) 강화, 사우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양국에 비전 사무소(Vision Office) 설치 등을 합의함.¹⁶⁾

다. 인도

-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는 2006년 델리 선언(Delhi Declaration), 2010년 리야드 선언(Riyadh Declaration)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후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6년 4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살만 사우디 국왕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데 합의함.¹⁷⁾
 - 양국은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부문 협력 이외에도 국방, 해상안보 및 사이버안보, 테러대응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기존의 석유 및 가스 교역 중심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뛰어넘어 석유화학 부문 합작투자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및 제3국에서 공동 시추 탐사, 에너지 부문 연구개발협력, 신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비석유 부문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에 합의함.
 - 사우디 투자청(SAGIA)과 인도 외국인투자청인 인베스트인디아(Invest India)는 양국 민간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협력협정(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에 서명함.
 -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모디 총리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인도 투자 확대 의사를 밝힘.¹⁸⁾
 - 양국은 인도의 국가투자인프라펀드(NIIF: 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에 대한 투자계획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도 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농업 부문 협력과 사우디 아람코의 인도 내 정유시설 건설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2019년 2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첫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사우디 비전 2030'과 인도의 주력 경제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함.¹⁹⁾

15) METI(2019), "Saudi-Japan Vision 2030 2.0 Formulated,"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618_003.html(검색일: 2019. 7. 1).

16) METI(2019), "Saudi-Japan Vision 2030 2.0: Compass of New Partnership."

17) MEA(2016), "India-Saudi Arabia Joint Statement during the visit of Prime Minister to Saudi Arabia." (April 3)

18) Miglani, Sanjeev and Hesham Hajali(2016), "Saudi crown prince meets India's Modi in Argentina, plans to ramp up investments," *Reuters*. (November 30)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인도의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인프라, 농업, 광물, 제조업,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부문에 대해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힘.
- 양국은 고위급 모니터링 기구인 전략적동반자위원회(Strategic Partnership Council)를 설립하고, 사우디 비전 2030과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인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등 경제발전계획 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인도 국가투자인프라펀드(NIIF) 투자, 사우디 아람코의 인도 정유부문 투자, 양국간 관광, 주택 부문 협력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함.

라. 유럽 및 미국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3월에 영국을 방문한 이후 4월에 프랑스와 스페인을 순방하며 유럽 주요국과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함.

- 영국은 '사우디 비전 2030'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다각화 및 사회개혁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을 비전 2030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함.²⁰⁾
 - 사우디아라비아는 교육, 보건의료, 문화, 엔터테인먼트, 금융서비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 혁신, 에너지, 안보, 국방 등 주요 부문에서 영국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은 주요 부문을 포함해 상호출자, 양자 교역, 공공조달 등의 부문에서 '사우디 비전 2030' 지원을 위한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함.
 - 영국은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 '사우디 비전 2030' 지원을 위한 특사를 선임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문화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함.
 - 사우디아라비아 PIF는 영국과 양국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힘.
- 프랑스에서는 20개 경제협력 사안과 관련하여 18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됨.²¹⁾
 - 구체적인 협력 부문이나 계약 방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무기 구매 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Total), 석유 서비스 기업인 테크넵FMC(TechnipFMC), 환경 업체인 수에즈(Suez) 등과 120억 달러 규모 계약에 합의함.²²⁾
- 스페인 방문 기간 동안 무함마드 왕세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마리아 돌로레스 데 코스페달 국방장관과 회동하였으며, 국방, 항공, 문화, 테크놀로지, 노동, 사회 개발 등의 부문에서 6개 협력각서를 체결함.

19) Miglani, Sanjeev(2019), "Saudi prince expects investment worth more than \$100 billion in India," *Reuters*. (February 20)

20) "Saudi Arabia, United Kingdom announce strategic partnership in joint communique"(2018), *Al Arabiya*. (March 9)

21) Kalin, Stephen(2018), "Saudi Arabia and France sign deals worth \$18 billion: Al Arabiya TV," *Reuters*. (April 10)

22) "UPDATE 1-Aramco signs \$12 bln worth of deals with France's Total, Technip and Suez"(2018), *Reuters*. (April 11)

-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페인과 22억 달러에 달하는 군함 구매 협정을 체결함.
- 유럽 순방에 앞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8년 3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선도적 기업들과의 협력 및 미국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함.
 - 사우디-미국 CEO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교육,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총 200억 달러 규모의 36개 MOU가 체결됨.²³⁾
 - 아랍코는 구글과 국가 클라우드 서비스 및 테크놀로지 관련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Raytheon)과는 사이버 보안 서비스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역 내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킹압둘아지즈세계문화센터(ITHRA)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콘텐츠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함.
 - 사우디산업개발펀드(SIDF)는 JP모건(JP Morgan)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산업금융 협력을 모색함.
 - 사우디 투자청(SAGIA)은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하여 정보기술(IT), 건설, 자동차, 환경, 식품, 석유 및 가스, 석유 서비스, 재생에너지 부문의 13개 미국기업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신규 사업을 허가함.

3. 한·사우디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 협력 의제

가. 한·사우디 협력 현황

-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위급 회담과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비전 2030 관련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음.
 - 2017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에너지산업부, 경제기획부, 상무투자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우디 비전 2030' 협력방안을 논의함.²⁴⁾
 - 양국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방산, 노후발전소 성능개선, 담수화 플랜트 등 7대 비즈니스 분야(B2B)와 보건·의료, 중소기업, 경제특구, 인력양성, 정책연구소, 전자정부 등 6대 정책 분야(G2G)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또한 장관급 'VISION 2030 Joint Group'을 신설하고 B2B 그룹, G2G 그룹, 애로해소 지원팀 등 3개 워킹 그룹을 설치하는 안을 논의함.
 - 2017년 10월 개최된 '제18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에서는 '사우디 비전 2030' 특별세션이 처음으로 진행됨.
 - 공동위원회와 연계하여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는 양국 협력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23) "36 MOUs worth \$20 billion signed between Saudi-US companies at CEO Forum"(2018), *Arab News*. (March 28)

24) 산업통상자원부(2017), 「한·사우디 VISION 2030 파트너십 구축으로 우리기업의 중동진출 기반 조성」, 보도자료. (4월 5일)

장관급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신설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함.²⁵⁾

-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양국의 비전 2030 협력 프로젝트의 선정, 점검, 이행촉진, 애로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함.

■ 2017년 10월 양국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계획인 '한·사우디 비전 2030'에 합의함(표 5 참고).

-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기업 대 기업(B2B) 및 기업 대 정부(B2G) 협력 강화, 정부간(G2G) 양자 협력 강화,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한 협력 확대 등 세 개 영역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적합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등의 지원 수단을 마련함.
- 민간부문 협력 가능 분야로 에너지 및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화, 역량강화,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중소기업 및 투자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선정함.
 - 조선소 및 엔진 공장 건설,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 건설,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 프로그램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HIRA) 적용, 중소기업간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협력이 유망한 세부 프로젝트 40개를 지정함.

표 5. '한·사우디 비전 2030' 주요 내용

3대 영역	기업 대 기업(B2B) 및 기업 대 정부(B2G) 협력 강화		정부간(G2G) 양자 협력 강화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한 협력 확대	
5대 협력부문	에너지 및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화	역량강화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중소기업 및 투자
주요 협력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협력(조선소 및 엔진 생산 공장 설립) • 고성능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 설립 • 태양광 발전소, 모듈 제조 시설 건설 및 운영 • 발전소 개선 및 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협력 • 로봇 산업 협력 •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구축 • ICT 협력 • 지능형 CCTV 기반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 스마트공항 건설, 운영·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싱크탱크 설립 및 연구 협력 • K-12 공교육 프로그램 및 고등 교육 정책 관련 자문 •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HIRA) 적용 • 임상시험 협력 • 사우디 정부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환자 송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간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금융지원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 중소기업간 매칭 확대 •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 • 엔터테인먼트 부문 G2G 협력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Korea Vision 2030, https://www.mep.gov.sa/en/ministryinitiatives/ksa_korean(검색일: 2019.

7. 3).

2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재국 정보. 한·사우디 협력. [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62/view.do?seq=133631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19. 7. 2\).](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62/view.do?seq=133631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19. 7. 2).)

- 201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양국은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창출 방안을 모색함.²⁶⁾
 - 2차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효율 시험 기자재 시험 인증, 의약품 제조시설 건립 등에 관한 MOU가 체결되었으며, B2B 협력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싱크탱크 제도를 신설하는 데 합의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삼성엔지니어링, PanGen 바이오테크, Genius 등 국내 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오·보건 분야 기업 간 MOU, 업무협약, 계약 등이 체결됨.
 - 청년 싱크탱크 제도는 청년층에게 양국간 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협력 이행을 전담할 비전 오피스(VRO)를 서울에 개소할 계획임을 밝힘.
 - 위원회와 더불어 비즈니스 포럼 및 일대일 상담회가 개최되어 국내 기업 90개 사,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20개 사가 참석하는 등 양국 기업간 교류의 장이 마련됨.

나. 한·사우디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협의 내용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6월 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고 '사우디 비전 2030'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함.
 - 양국 정상은 기존의 에너지, 건설 중심의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보건의료, ICT, 문화, 교육 등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하여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함.
 - 양국은 △상생의 신 경제협력 증진 △양자 교역 및 투자 확대 △미래를 함께할 믿음직한 동반자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 △역내 평화와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함.²⁷⁾
 -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는 자동차 및 수소 경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양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친환경차 기술협력, 자동차 부품개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관심 기업 발굴,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 협력, 수소차 및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및 활용 등에 대한 협력에 합의함.²⁸⁾
 - 무함마드 왕세자는 6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사우디 판 ADD 설립 의지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함.²⁹⁾

26)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4월 3일)

27) 김현철(2019. 6. 26), 「[전문] 한·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언론발표문」, *news1*, <http://news1.kr/articles/?3655362>(검색일: 2019. 7. 2).

28)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제조에너지 신산업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2019. 6. 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9) 윤상호(2019. 6. 27), 「ADD 찾은 사우디 왕세자, 한국 무기 보여 한 말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7/96222326/1>(검색일: 2019. 7. 3).

-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방위산업 국산화율 확대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 이번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투자청(SAGIA) 등과 우리 기업은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 83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함(표 6 참고).

- 아람코는 기존의 에쓰오일(S-Oil)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석유 부문뿐만 아니라 수소차, 선박, 제조업 등의 부분에서 우리 기업과 총 12건의 MOU를 체결하였음.
-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대림 등과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대중공업과는 조선, 엔진 제조, 석유화학 등에 3건의 MOU 및 2건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음.³⁰⁾
- 아람코는 효성그룹과 탄소섬유 생산공장 설립, 화학 분야(폴리케톤과 PPDH) 및 전력(ESS, 송·배전) 협력에 대해,³¹⁾ GS홀딩과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투자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비석유 부문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³²⁾
- 한화그룹은 6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산업체 SAMI(Saudi Arabia Military Industries)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현지에서 군수품 제조 및 판매 협약을 체결하였음.³³⁾
- 사우디 투자청(SAGIA)은 6월 26일 '사우디-한국 파트너십 컨벤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11개 기업과 15건의 MOU를 체결하였음.
- 특히 최근 양국 협력에서 주목받고 있는 보건 의료, 금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분당병원, 삼성바이오에피스, IBK기업은행과 사우디 투자청, 국가방위부, SABIC 등이 MOU를 체결하였음.
- 2019년 4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합의에 따라, 사우디 투자청(SAGIA)은 2020년 1분기 내로 서울에 '사우디 비전 2030' 사무소(VRO: Vision Realization Office)를 개소하여 양국 투자 증진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음.³⁴⁾
- 그 밖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국내 5대 그룹 총수 간 회동 등에서 네옴(NEOM) 시티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 협력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30) "Saudi Aramco signs 12 agreements with South Korean partners worth billions of dollars"(2019. 6. 26), *Aramco Korea*, <https://www.saudiaramco.com/en/news-media/news/2019/aramco-12-agreements-korea-partners>(검색일: 2019. 6. 29).

31) 「효성 조현준 회장, 아람코와 탄소섬유 협업 박차」(2019. 6. 27), 『효성그룹』, 뉴스센터, <http://www.hyosung.co.kr/kr/pr/news/view.do?seq=7273¤tPage=1&keytype=&keyword=>(검색일: 2019. 7. 3).

32) "Saudi Aramco signs 12 agreements with South Korean partners worth billions of dollars"(2019. 6. 26), *Aramco Korea*, <https://www.saudiaramco.com/en/news-media/news/2019/aramco-12-agreements-korea-partners>(검색일: 2019. 6. 29).

33) "SAMI announces JV agreement with Korean conglomerate"(2019. 6. 30), *Saudi Gazette*, <http://saudigazette.com.sa/article/570471/SAUDI-ARABIA/SAMI-announces-JV-agreement-with-Korean-conglomerate>(검색일: 2019. 7. 2).

34) 선한결(2019. 6. 26), 「사우디투자청, 韓기업·기관 11곳과 투자진출 MOU」,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6261453>(검색일: 2019. 7. 2).

표 6. 한·사우디 주요 MOU 및 계약 체결 내용

MOU	합의 내용	합의 부문
폴리프로필렌 컴파운딩 프로젝트 MOU (PP Compounding Project) (한) SK가스 - (사) AGIC*	· 4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 통해 사우디(Jubail)에 연간 10만 톤 PP 컴파운딩 생산 공장 건설	타당성조사 통한 사업성 검토
프로판 탈수소화 폴리프로필렌 프로젝트 MOU (PDH-PP Project) (한) SK가스 - (사) AGIC	· 약 18억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 통해 사우디(Jubail)에 연간 각각 75만 톤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	타당성조사 통한 사업성 검토
석유 분야 협력 (한) 한국석유공사 - (사) 아람코	· 국제공동비축 등 협력방안 모색	에너지협력
석유화학 협력 MOU (한) 현대오일뱅크 - (사) 아람코	· 석유화학 분야 R&D 검토	에너지협력
로봇산업 협력 MOU (한) 로봇산업진흥원 - (사) 왕립기술원	· 로봇 관련 세미나 공동 개최,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협력	기술협력
수소차 협력 MOU (한) 현대자동차 - (사) 아람코	· 미래차 기술협력 등 포괄적 협력	기술협력
선박엔진공장 합작투자 계약 (한) 현대중공업 - (사) 아람코	· 킹살만 조선소내 선박엔진공장 설립 계약	4.2억 달러 투자
S-Oil-아람코 투자협력 MOU (한) S-Oil - (사) 아람코	· S-Oil - 아람코 투자협력	S-Oil의 60억 달러 투자 관련 협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6. 26),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제조-에너지 신산업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참고자료.

4.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시사점

■ ‘한·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이 기존의 에너지 및 건설·플랜트 부문에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교역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수입 대상국 중 4위, 수출 규모에서 순수출액 기준 중동 지역 1위(2018년)인 주요 교역대상국이며 우리나라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4의 수출시장(2017년)이나,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입 중 약 94%(2017년)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분야 또한 대부분 현지 인프라 건설이나 플랜트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의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탈석유 경제다각화 전략에 따른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것이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2019년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그간 오랫동안 장관급에 머물렀던 정부의 최고위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기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은 물론 로봇, 생명, 신소재 등 신산업 부문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

- 그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던 스마트인프라, 중소기업, 역량 강화 분야까지 고려한다면 양국 경제협력의 주제가 전분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됨.
- 다만 이번 방한에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정부 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 협력 등의 의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겨 향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후속 사업 발굴 및 논의가 필요함.

■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양국 고용 및 내수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된 바 있음.
- 특히 논의되었던 투자의제가 대부분 단일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규모와 범위인 만큼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우디 아람코의 IKTIVA(The In-Kingdom Total Value Add) 프로그램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산화 및 현지 고용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부품 및 중간재, 인력 등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단기간에 공급선을 확보하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민간 기업의 현황이나 숙련노동 수준이 적절하지 않음.
- 대기업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이 현지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부품 및 중간재와 숙련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간 협력 방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정부-금융기관 간의 상설적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실제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중심이 되어 국내 관련 건설기업과 주요 공기업,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해외 대형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PPP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MOU를 구체적인 계약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결정 구조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후 점검 및 이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산유국 왕정국가와 협력 사업에서 상층부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우리나라의 협력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실무 수준에서 지속적인 사후 점검 및 이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협력 사업 실현에 필수적임.
- 지난 4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합의된 양국 비전 사무소(VRO)의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각 사무소가 실질적인 정부 및 민간 부문 간 연락 및 파트너 매칭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양국 비전 사무소는 비전 2030 위원회의 주요 지원체계(enabler)로 논의된 만큼, 양국 대사관, KOTRA-SAGIA 등 공공부문 투자지원기관, 사우디 아랍코 코리아 등 한국 진출 사우디 기업 등의 기존 채널과 역할 및 지원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양국간 논의가 필요함.
- 특히 현지 진출 기업이 겪는 인허가 및 법·제도상의 애로사항, 고용 및 투자 관련 규제와 문화 등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기업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상설화되고 이런 요구가 비전 사무소를 통해 빠르게 서로 공유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2의 중동 특수가 기대될 만큼 막대한 규모의 투자계획이 논의가 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정학적·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논의된 투자계획이 총 83억 달러에 달하며 국내 5대 그룹 총수 간 회동 등에서 네옴(NEOM) 시티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가 논의되는 등 과거 중동 건설 붐으로 대변되는 중동 특수가 재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음.
- 반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구조에 대한 비판과 이로 인한 투자 리스크, 그리고 이란, 예멘, 이스라엘, 카타르 등 역내 국가와의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정책 등 경제구조 개혁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투자, 고용, 유통 관련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거나 사회·문화적 이유로 인해 관습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투자 진출 결정시에 면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함.
-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및 분과 회의나 현지 공관 등의 기존 채널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향후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네트워크나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KIEP**